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이 슬픔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바바가 왔다. 이것은 무한한 버림이다.

**질문:** 산야시들의 버림과 너희들의 버림의 주된 차이는 무엇이나?

**대답:** 저 산야시들은 자기 집과 가족들을 떠나 숲으로 가지만, 너희는 집과 가족들을 떠나서 숲으로 가지 않는다. 집에서 살면서 너희는 세계 전체를 가시덤불 숲으로 여긴다. 너희들은 시각으로 세상 전체를 포기한다.

움 산티. 영적인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 영적인 자녀들에게 매일 설명한다. 너희들이 반 사이클 동안 물지각해진 탓에 날마다 그가 설명해주어야 한다. 첫째로 인간들은 평화를 원한다. 영혼들은 본래 평화의 나라의 주민들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평화의 대양이다. 너희들은 지금 각자 평화를 유산으로 받고 있다. 사람들은, “오 평화의 공여자시여, 저희를 이 세계에서 우리들의 집, 평화의 나라로 데려가 주소서, 즉, 우리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주소서”라 한다. 사람들은 신인들의 상 앞에 가서 시브 바바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데, 왜냐하면 시브 바바는 평화의 대양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시브 바바에게서 각자 평화를 유산으로 받고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평화의 나라로 가야 한다.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틀림없이 그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의 머리 위에서 죄의 무게가 제거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를 기억한다. 너희들은 아버지 한 분에게서 행복과 평화를 받는데, 왜냐하면 그는 평화와 행복의 대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된 것이다. 평화는 또 해방이라고도 불린다. 그 다음에 삶 속의 해방이 있고 또 삶 속의 굴레도 역시 있다. 삶 속의 굴레에 있던 너희들이 지금은 삶 속에서 해방되고 있다. 황금시대에는 굴레가 없다. 삶 속의 쉬운 해방, 쉬운 해방과 구원, 이렇게 기억된다. 너희 자녀들은 양쪽 모두의 의미를 이해했다. 해방은 평화의 나라, 구원은 행복의 나라다. 행복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슬픔의 나라다.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녀들아, 너희의 집, 평화의 나라를 기억해라. 영혼들은 자기들의 집을 잊어버렸다. 아버지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가 설명하는데, 오 영적인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너희의 죄는 기억함으로써 없어질 것이다. 영혼들은 순수해져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불순한 세계라는 것과, 여기에는 순수한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순수한 세계는 황금시대라 불리고, 불순한 세계는 철시대라고 불린다, 즉 라마의 왕국과 라반의 왕국이다. 불순한 세계는 라반의 왕국에 세워진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연극이다. 무한한 아버지가 이것을 설명한다. 그 하나만이 진리라고 불린다. 오직 합류시대에만 너희는 진실된 것들을 듣고, 그 다음에는 황금시대로 간다. 그 다음에 동시대에 라반의 왕국이 시작된다. 라반은 악마이며, 악마는 결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마야는 헛되고, 몸도 헛되다. 영혼은 헛되고 육신도 역시 헛되다.”라고 일컬어진다. 산스카르들은 영혼에 기록된다. 금, 은, 동, 철, 이렇게 네 가지 금속이 있다. 이 요가의 힘으로 모든 합금이 제거되고, 너희는 순금이 된다. 황금시대에는 너희가 순금이다. 그 다음에 은이 섞이면 너희는 달 왕조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동시대와 철시대에는 동과 철의 합금이 섞인다. 그 다음에 너희들 안에 섞인 은, 동, 철의 합금이 요가로 제거된다. 처음에는 영혼인 너희들 모두가 평화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황금시대로 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들이며, 그것을 황금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즉 너희는 순금이다. 불순물은 모두 요가의 힘으로 제거되고, 오직 순금만 남는다. 평화의 나라는 황금시대라고 불리지 않는다. 황금시대, 은시대, 동시대는 여기에 있다고 일컬어진다. 평화의 나라에는 다만 평화뿐이다. 영혼이 처음 몸을 가지면 그것은 황금시대라 불리며, 세상 자체가 황금시대가 된다. 그 당시에는 몸이 사토프라단한 5원소로 만들어진다. 영혼이 사토프라단할 때는 몸도 역시 사토프라단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철시대의 몸을 받는데, 왜냐하면 영혼에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황금시대와 은시대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세계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은 이제 뭘 해야 하느냐? 너희들은 먼저 평화의 나라로 가야 하므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너희가 타토프라단한 데서 사토프라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는 황금시대에는 배역을 갖지 않는다. 영혼이 몸을 받으면, “이 사람은 황금시대의 인간 영혼이다”라고 일컬어진다. “황금시대의 영혼”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황금시대의 인간 영혼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은시대의 인간 영혼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평화를 가지고 또 행복도 가진다. 그러니 너희가 뭘 해야겠느냐? 슬픔의 나라를 버려라. 이것은 무한한 버림이라고 불린다. 자기 집과 가족들을 떠나서 숲으로 가는 저 산야시들은 제한된 포기를 한다. 그들은 세계 전체가 숲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가시덤불 숲이다. 이것은 가시들의 세상이고, 그것은 꽃들의 세상이다.

비록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시들의 세계에 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 속에 들어가서 산다. 그들의 길은 고립의 길인 반면, 너희들의 길은 가정의 길이다. 너희들은 순수한 부부였었고, 지금은 불순한 부부들이 되었다. 그것은 또 가정의 아쉬움이라고도 불린다. 산야시들은 나중에 온다. 이슬람교와 불교에 속하는 사람들도 역시 나중에 온다. 그들은 기독교도들보다 약간 일찍 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나무와 사이클도 역시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는 매 사이클마다 와서, 칼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씨앗, 진리,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 사이클마다 와서 우리에게 칼과 나무의 비밀들을 설명해준다. 너희는 영혼들이지만, 지식의 대양, 평화의 대양 또는 행복의 대양이라고 불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찬양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한다. 아버지에 대한 이 찬양은 영원하다. 그는 언제나 순수하며 무체다. 그는 너희를 정화시키려고 여기에 그저 잠시 동안만 온다. 편재론은 있을 수 없다. 아버지가 언제나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은 항상 그를 기억한다. 황금시대에는 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라반의 왕국에서 너희들은 소리쳐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가 혼자 와서 너희에게 평화와 행복을 준다. 이렇게 너희들은 평화롭지 못한 때에는 그를 반드시 기억한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나는 매 5천년마다 온다. 반 사이클 동안은 행복이 있고, 반 사이클 동안에는 슬픔이 있다. 라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오직 반 사이클이 지난 후의 일이다. 모든 악덕들의 뿌리인, 첫 번째 악덕은 욕체의식이다. 다른 모든 악덕들은 오직 그것 다음에만 온다. 아버지가 지금 설명하는데,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영혼의식이 되어라. 영혼을 알아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저, “영혼이 이마 가운데서 반짝인다”라는 말만 한다. 그것이 불멸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이해한다. 이 몸은 불멸의 형상인 영혼의 옥좌다. 영혼은 이마 안에 앉는다. 이것은 불멸하는 형상의 옥좌다. 모든 이가 살아 있는, 불멸의 옥좌이며, 암리차르에서 사람들이 목재로 만든 불멸의 옥좌는 살아 있는 불멸의 옥좌가 아니다. 아버지가 이미 설명해주었듯이, 인간들 모두 각자 고유한 불멸의 옥좌를 가진다. 영혼이 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 황금시대에는 철시대에는 인간의 이 몸은 영혼의 옥좌다. 그래서 불멸하는 옥좌들이 참으로 많다. 인간들 모두가 불멸하는 영혼들의 옥좌다. 영혼은 하나의 옥좌를 떠나는 즉시 다른 옥좌를 가진다. 처음에는 옥좌가 작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더 커진다. 옥좌인 이 몸은 작아지고 커지지만, 시크교도들이 “불멸의 옥좌”라고 부르는 나무 옥좌는 더 커질 수도 더 작아질 수도 없다. 이마가 모든 인간들의 불멸하는 옥좌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영혼들은 불멸하며 결코 죽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영혼들은 다른 옥좌를 받는다. 황금시대에는 너희가 최상급의 옥좌를 받는데, 그것은 황금시대의 옥좌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의 옥좌를 받는다. 그러니 황금시대의 옥좌를 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순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말하는데,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 있는 불순물이 제거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신인의 옥좌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브라민 가문의 옥좌를 가졌다. 너희 영혼들은 가장 상서로운 합류시대의 옥좌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신인의 옥좌를 받을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 오직 욕체의식이 된 후에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슬픔을 끼친다. 그런 이유로 이것은 슬픔의 나라라고 불린다. 아버지가 지금 자녀인 너희들에게 설명하는데, 너희의 진짜 거주지인 평화의 나라를 기억해라. 행복의 나라를 기억하고 이 슬픔의 나라는 계속해서 잊어라. 이것에 무관심해져라. 너희는 산야시들처럼 집과 가족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쁘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다 좋다. 그들의 하타 요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신인들이 죄의 길로 갈 때 바라트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순수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도 역시 도움을 준다. 바라트만이 불멸의 나라다. 아버지가 오는 것은 여기다. 따라서 무한한 아버지가 오는 곳은 전체 모든 순례지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순례지다. 오직 아버지만이 와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푼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트가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나라다. 아버지가 설명하는 주된 것은, 자녀들아, 기억의 순례를 하며 머물러 있어라. “만마나바브”라는 말도 역시 기타에서 언급되지만, 아버지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만마나바브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욕신의 종교들을 전부 다 버리고, 너희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다. 영혼은 불멸하며 결코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불멸하는 배역들을 기록해서 갖고 있다. 드라마는 예정되어 있다. 나중에 오는 영혼들은 아주 작은 배역을 맡는다. 나머지 시간에 그들은 평화의 나라에서 산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나중에 오는 자들은 행복을 조금, 슬픔도 조금만 경험한다. 디왈리 때는 모기들이 무척 많이 나오지만 아침에 보면 모기들이 전부 다 죽어 있듯이, 인간들에게도 마

찬가지다. 나중에 오는 자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마치 동물들의 삶과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계의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 또 인간세계의 나무가 작은 데서 어떻게 크게 자라고, 또 큰 데서 어떻게 작아지는지 설명한다. 황금시대에는 극소수의 인간들뿐인 반면, 철시대에는 참으로 대단한 성장이 있어서 나무가 커진다. 아버지가 이제껏 주었던 주된 신호는,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라는 것이다. 8시간 동안 기억하며 머무는 훈련을 해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마침내 순수해져서 아버지에게 가고 또 장학금도 받을 것이다. 만일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기서 다음 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벌이 경험되고 지위는 낮아진다. 모든 이가 각자의 카르마의 잔고를 청산해야 한다.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지금도 계속해서 생을 취하고 있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은 기독교도들의 수가 바라트 국민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또 지각이 있다. 바라트 사람들은 100% 지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몰지각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100%의 행복을 받는 이들이 그들이고 그 다음에 100%의 슬픔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나중에 온다. 기독교 왕조와 크리스나 왕조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이미 설명해주었다. 기독교도들이 너희의 왕국을 빼앗았고, 그래서 너희는 기독교 왕조로부터 그것을 다시 돌려 받는다. 지금 이때에는 기독교도들이 더 강하다. 바라트는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바라트는 지금 굶주리고 있어서 되돌려주는 봉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많은 부,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여기서 가져갔다. 그들은 매우 부유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를 돌려 보내준다. 그들은 아무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만일 너희를 알아본다면 그들은 와서 너희들에게서 조언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신의 조언을 따르는 신의 공동체다. 너희들은 신의 사회에서 신인 사회로 변할 자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전사, 상인, 슈드라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브라민들이며, 그 다음에는 신인들, 그 다음에는 전사들이 될 것이다. "함 소"라는 말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보아라. 이것은 공중제비 놀이이며,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만, 마야는 너희가 잊게 만들고 사악한 기질들을 너희들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전에는 너희들이 미덕들을 가졌었다. 불순해지는 것은 사악한 기질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 실천 요지:

1.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족들과 사는 동안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훈련을 쌓아라. 오직 기억하는 훈련을 함으로써만 너희의 죄가 잘려나갈 것이고 너희는 황금시대의 옥좌를 받을 것이다.
2. 이 슬픔의 나라에 무한한 무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본래 살던 거주지, 즉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를 기억해라. 육체의식이 됨으로써 누군가에게 슬픔을 끼치는 일은 없게 해라.

**축 복:** 부주의함이라는 파도에 작별을 고하고, 한결같이 열성과 열의를 가진 지각 있는 영혼이 되어라. 남들을 보고 자기들까지 조심성이 없어지는 자녀들이 일부 있다. 그들은,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 괜찮아"라고 생각한다. 만일 비틀대는 사람을 본다고 해서 너희들 역시 부주의해져서 비틀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지각이 있는 일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부주의하게 지내는 자들에게 밥다다는 자비를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후회의 때가 대단히 힘들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있게 되어서 너희 마음으로 부주의함의 파도나 남들을 보는 파도에 대해 작별을 고해라. 남들은 보지말고, 그저 아버지만 봐라.

**슬로건:** 상속자가 될 만한 우수한 영혼들을 준비해라, 그러면 계시의 북소리가 울릴 것이다.

\*\*\* 움 산티 O M S H A N T I \*\*\*